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루카 2,51)

얼마 전,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에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날만큼은 너무나도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과거의 좋지 않았던 기억과 상처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잠이 깬 이후에도 한동안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꿈에 본 것들은 그동안 항상 마음에 걸려있던 것들이었고, 매번 머릿속에서 저를 괴롭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좋지 않았던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길 바라지만, 상처와 아픔은 그리 쉽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성모님의 삶에 대해 묵상하던 중,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루카 2,51)

있었던 아들 예수를 사흘 만에 성전에서 다시 찾았을 때, 성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셨던 성모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좋았던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더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사람들의 외면과 배신, 조롱과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성모님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바로 그 고통을 성모님 역시 똑같이 겪으셔야만 하였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그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픔에도 잠 못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인데, 성모님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생각해봅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성모님이 당신 겪은 모든 아픔과 기억을 그저 잊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참조:루카1,29) 지난 아픔과 상처를 그냥 다 잊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결정과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모님은 곰곰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깊은 성찰과 함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모님은 충분히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모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모님의 존재는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으셨듯, 우리 역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선택받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성모님처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기도하며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더 없는 희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아픔과 상처가 그저 잊히기만을 바라기보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저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보려 합니다.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우리가 모두 우리의 모범이신 성모님과 함께함으로써 성모님의 깊은 위로와 치유를 체험하길 희망합니다.

각 교정시설 주님 부활 대축일 맞이 꾸러미 지원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각 교정시설에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2,600개), 서울동부구치소(2,200개), 서울남부구치소(2,000개), 서울남부교도소(1,200개)에 전달할 부활 꾸러미(총 8,000개)를 오랜만에 봉사자들이 교정사목센터에 모여 포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 역시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며 수용자들을 위한 부활 꾸러미도 포장하고 더없이 기쁜 날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각 교정시설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부활 꾸러미를 통해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미사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정시설 미사가 4월 6일(수) 서울구치소 남사 미사를 시작으로 12일(화) 서울구치소 여사, 14일(목) 서울동부구치소 남사에서 순차적으로 봉헌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담장 안의 미사가 더없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미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4월 13일(수) 경기도 과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가 교정시설 코로나19 극복과 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4월 4일(월)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서는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을 담당하는 살레시오 유상철 세례자요한 신부님의 송별식과 나명옥 바오로 신부님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이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2주년을 맞이하여 10년, 20년, 30년 장기봉사자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52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통해 되돌아본 나의 교도소 봉사

이옥경 루시아_서울남부교도소 봉사자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은 폴란드 영화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과 함께 국제 아카데미상 후보작으로 영화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작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의 두 얼굴을 표현하였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주인공 스무 살 청년 ‘다니엘’은 비행 청소년으로, 소년원 생활을 합니다. 그는 소년원에서 담당 신부님의 보조 역할을 했고 그 도움으로 가석방되어 근처의 성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소년원에서 흠친 신부복으로 얼떨결에 신분을 속이고 신부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한 시골 작은 본당 신부님의 대행으로 미사 집전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신선한 강론으로 감동과 울림을 주는 신부가 됩니다. 그 시골 동네에는 몇 년 전에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살인자 부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여인은 동네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가짜 신부 ‘다니엘’은 진정성 있는 인간애와 따뜻한 사랑으로 누명을 쓴 여인을 포함하여 동네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죽어가는 동네를 살려냅니다. 이런 ‘다니엘’의 선한 눈빛과 표정에서는 비행 소년 살인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짜 신부 행세는 들통이 나고 마지막 송별 미사에서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납니다.

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신부복을 입은 신부 모습과 죄수복을 입은 살인자의 모습으로 극과 극의 양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의 신부보다 더 신부다운 신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친 모습과 죄수로서 끝장을 보여주며 격렬하게 격투하는 악랄한 모습, 두 모습이 다 다니엘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인간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일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교도소 봉사 활동을 몇 년간 하였습니다. 교도소 가는 게 겁나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는 등 많은 것들을 주위에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교도소 소공동체에서 직접 그분들과 대면해 보면 오히려 일반적인 신앙 공동체 교우들보다 더 천진하고 선한 모습을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단절되고 긴장된 생활이지만 세상의 죄와는 상관없이 너와 내가 함께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존재임을 느끼며, 만나는 시간만큼은 인간 내면의 가장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살인자였던 주인공 다니엘 역시, 주변에서 신부라는 시선을 받고 자신을 동일시하며, 인간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농축된 선함을 끌어올려 실제 신부보다 더 신부다운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 안에 숨어있는 이런 양극, 선과 악은 항상 꿈틀거리며 자신의 선한 모습을 자꾸 건드려 줌으로써 선은 확장되고 악은 스스로 물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의 완성은 선의 얼굴을 갖는 것이라 했습니다. 외롭게 격리된 재소자분들과 함께했던 짧은 봉사의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도 그 시간만큼은 선한 마음이 끌어올려 진 함께 공유한 순화된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좋은 시간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라 합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며, ‘예수’라는 그리스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이 됩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가나안 점령으로 실현시켰다는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예수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점령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감히 라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만함’, ‘격렬함’ 혹은 ‘분노’, ‘오만함’을 뜻합니다. 말뜻도 부정적인데다가, 이집트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성인데, 게다가 ‘창녀’(여호 2,1; 6,17; 6,25)였습니다. 성벽에 붙어살았던 것으로 보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였습니다. 이름의 뜻도 부정적이고, 여성이고, 가난하고, 직업도 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위 자체도 거짓말을 하여서 첩자를 숨겨준 것이였습니다. 단순히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해서, 하느님 약속의 완성에 도움이 된 것일까요?

사실 모세 역시 주님의 영에 따라 가나안땅을 정찰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을 선발하여 사십일 동안 자세히 살피게 합니다. 땅과 나무를 살피게 하고, 어느 부족이 사는지, 어디에 요새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게 합니다(민수 13,1-24). 사십일 동안 열두 명의 정찰대는 ‘기름진 땅이지만, 그곳의 사는 민족들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채였다.’라는 보고는 백성들의 불안과 공포를 낳게 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반란까지 꾸밉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까지 합니다(민수 14,4). 이는 결국 하느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민수 14,34-35).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고작 두 명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꼼꼼히 살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라합의 집에 하룻밤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산에서 사흘을 숨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예리코의 지형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여호 2,23)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라합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또 라합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 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여호 2,9.11).”

이렇게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여호 2,24).”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때와 다르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단순히 일주일간 성읍 돌레를 돌면서 뿔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큰 함성으로 함락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여호 6,1-21).

라합은 예수의 족보에 포함되어 언급되는 몇 명 안 되는 여성 중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마태 1,5).

교정사목을 하면서 많은 협조자를 만납니다. 너무나 성실하신 우리 봉사자님들, 꾸준히 물적, 영적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 시간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교정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시지만, 수용자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출소자분들, 수용자 가족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느님 체험과 우리의 사랑에서 하느님을 보았다는 그 체험들, 고마워함, 감사함, 그 진한 눈물이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신앙고백만큼이나 교정사목의 후원자들, 협조자들, 봉사자들, 사목자와 직원을 힘이 나게 합니다.



실패 가능성도 염두 한 창업 준비 (1)

염OO / 2022년 창업대출자

1. 모두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을 때 매출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점이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대부분 힘들게 운영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바로 한 게 아니라 무역/물류 회사에 다니면서 경험치를 쌓았고 나아가 확신이 들었을 때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2. 창업을 준비하면서 현재 업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수입 도매 판매를 주로 하었는데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제가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수출을 제외한 수입 판매는 품목에 따라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판매 시스템은 같을지 몰라도 특징의 한계가 있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는 저렴한 자재에 대해 수입을 하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는 자재는 진입이 쉽지만 결국 낮은 가격으로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꼭 비싼 자재를 취급해야 큰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비싼 자재일수록 재고 부담과 재고 관리 등 더 많은 주의할 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낮은 가격대의 자재를 수입해서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 창업하실 때는 좋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템을 내가 팔기에 가능한 자금력이 되는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 일반인에게 현재 업종의 장단점과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수입해서 소매하는 업종은 품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독점하는 분야도 많고 진입이 어려운 품목도 많으므로 창업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업종에 기술이 있거나 권한이 있다면 창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할 때는 아이템과 예산을 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진행을 하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입이 쉬우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를 해도 여러 품목으로 변경해서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뭐

든지 장단점을 골고루 인지해서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자금 마련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창업해서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지출과 영업 부진으로 자금 회전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자금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은행에 바로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곳의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좀 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5. 영업하면서 나만의 장기나 비법이 있으십니까?

저는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영업 홍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매출로 연결이 된다고 하여도 홍보에 의존하는 매출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쓸데없는 홍보 지출보다는 그 외에 운영에 힘썼습니다.

6. 창업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영업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창업 당시에는 물류며 회계며 시스템적으로 수작업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시간과 돈이 낭비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적은 수수료로 대형 회사에 위임해서 진행하므로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7. 앞으로 영업이 어떻게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떤 것일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시죠?

예전 창업과 지금의 창업은 코로나 발병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가 폐업하게 되었고 새로운 업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팬데믹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업체가 살아남았던 거였고 소수 업체만이 반사이익을 받았습니.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여러 품목 중에 헬스용품이 취급하게 되었는데 팬데믹 영향으로 홈트(집에서 하는 운동) 증가로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도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불리 아무런 준비 없이 하기보다는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창업 실패 가능성도 염두 해놓고 자금을 운용하셔야지 사업 초기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현대일 신부님! 잘 지내셨는지요.

며칠 전에 이곳에 종교집회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름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종교집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었고요.

저는 그 누가 겪어 보지도 않은 세상을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 중의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나 많이도 생각했지요.

어차피 저의 운명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이곳에서 철저히 수도 생활처럼 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닦으며 사회에 나가서 지속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나름대로 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힘들 때 과자 봉투를 선물 받고 이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방에 있는 사람은 당장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과자를 정말 먹고 싶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그래도 제가 믿는 종교, 하느님께서 어찌 이렇게 잘 아시고 주실까? 감사합니다. 했지요.

그때는 이곳에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목욕, 운동, 접견 등 전면 금지가 한 달 이상 지속되었던 때에 숨통을 틔워준 곳이 우리 천주교였던 것입니다.

저도 나가면 꼭 잊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곳을 찾아주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진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도 태양이 비추듯이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드리며, 신부님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지혜, 총명을 이루시어 모든 인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마틸다 드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틸다 자매님이 현대일 신부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2년 6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6월 6일(월)	현충일(공휴일) 미사 없음
▶ 6월 13일(월)	/ 중서울 길음동성당
▶ 6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 동서울 광장동성당
▶ 6월 27일(월)	/ 서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이레우리밀**)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파운드케이크	₩5,000
▶ 통밀식빵	₩5,000
▶ 통밀두부과자	₩5,000
▶ 흑미식빵	₩5,000
▶ 무가당빵	₩6,000
▶ 통밀모링가빵	₩8,000
▶ 엠파빵 5개	₩10,000
▶ 블루베리베이글 5개	₩10,000
▶ 단팥빵 5개	₩10,00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3/15~4/14)

2022년 3월~4월에는 강이순 마틸다, 이경옥 유스티나, 이금 제노베파, 이현경 카타리나, 정춘자 루피나, 조춘자 아녜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